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온갖 법 성품 없는 줄 알라

중생 고통 함께하는 마음이 초발심

이제는 제14 수미정상게찬품(須彌頂上偈讚品)이다. 여기서는 열 분의 보살이 각기 게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

"온갖 법들이 제 성품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 안다면 곧 노사나불을 뵈오리(了知一切法이 自性無所有니 如是解法性하면 則見盧舍那로다) / 비유컨대 어두운 데 있는 보배 등불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법도 말하는 사람 없으면 지혜 있더라도 알 수 없는 일(譬如暗中寶를 無燈不可見인달하야 佛法無人說이면 雖慧莫能了로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 받으면서 부처님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寧受地獄苦하야 得聞諸佛名이언정 不受無量樂하야 而不聞佛名이로다) / 그 까닭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없는 겁 동안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所以於往昔에 無數劫受苦하야 沉轉生死中은 不聞佛名故로다)."

위의 두 게송은 서방의 승혜보살(勝慧菩薩)이 설한 게송이니 이는 자장스님(590~658)의 구도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송이다. 〈삼국유사〉 권3의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 편에 "정관 10년(636)에 구법을 위해 당나라에 갔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하고 태화지변(太和池邊)의 문수석상에서 칠일기도를 봉행하던 중 꿈 속에 부처님의 정골사리, 금란가사와 함께 전해받은 게송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뒤의 두 게송은 서북방의 진실혜보살(眞實慧菩薩)이 설한 게송이다. 이는 제24 도솔게찬품에도 비슷한 사상(甘苦近佛)을 간직한 게송이 있다. '청량소'에서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해탈이 빨라지기 때문이오, 즐거움을 받는 대신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반대로 윤회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受苦聞名 速解脫故 受樂不聞 反 淪故)."고 하였다.

다음은 제15 십주품(十住品)이다. 앞의 두 품은 바로 이 품을 설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십주품은 예로부터 제26 십지품과 사상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장항에서 전제로 말하기를, "고통받는 중생의 귀의할 곳이 되어야 하나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 증대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니라(爲苦衆生하야 作歸依處니라 何以故오 欲令菩薩로 於佛法中에 心轉增廣하고 有所聞法에 卽自開解하야 不由他敎故니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중생들의 말하는 법을 한 말로 남김없이 연설하여서 그들의 제 성품을 모두 알고자 보살이 이를 위해 처음으로 발심하나니(一切衆生語言法을 一言演說無不盡하고 悉欲了知其自性하야 菩薩以此初發心이로다)

시방삼세 수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성문들까지 갖가지 미묘한 변재를 다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 보여도, / 초발심한 공덕은 측량 못하여 시방의 중생계에 가득 찼나니 뭇 지혜로 말해도 끝 못 내려든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이랴(去來現在十方佛과 一切獨覺及聲聞이 悉以種種妙辯才로 開示初發菩提心이라도/ 發心功德不可量이라 充滿一切衆生界하니 衆知共說無能盡이어든 何況所餘諸妙行가)."

위의 두 게송은 첫 번째인 발심주(發心住)에 관한 게송이며, 뒤의 두 게송은 열 번째인 관정주(灌頂住)를 종합결론하여 수행하기를 권하는 내용이다. 보리심을 발한 공덕은 마치 동해바다의 새우 한 마리가 고래와 같이 되려고 발원한다는 옛 고사처럼, 전쟁통에 눈을 잃은 자식의 눈을 뜨게 하려고 분황사 천수천안 관음상 벽화에 기도하던 신라의 아낙 희명(希明)처럼, 깊은 믿음으로 올리는 정성스런 기도와, 중생의 고통과 함께 하려는 보살의 마음이라야 가능하리라.(유사 권3 盲兒得眼)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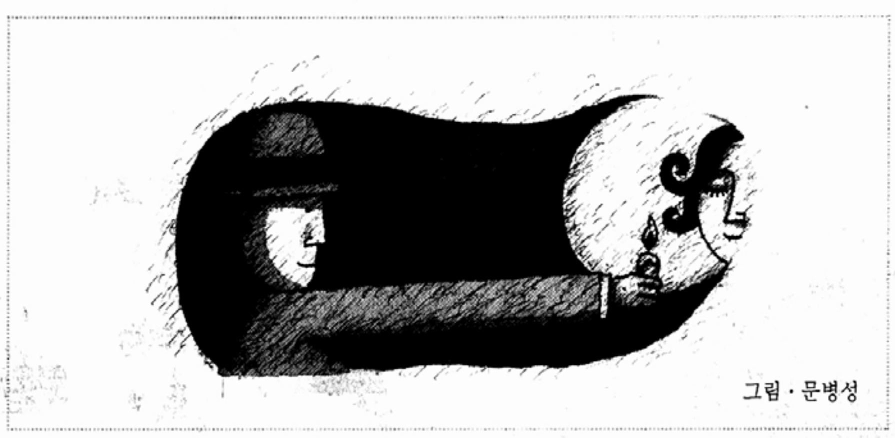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빛도 흡입되는 초밀도 공간

불교와 과학 〈29〉

진공청소기는 압력차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강한 흡입력을 만들어 쓰레기를 청소기 안으로 빨아들인다. 비슷한 원리로, 중력에 의한 압력차가 있어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땅을 향해 떨어지기도 한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1/6 밖에 안 되어 달 표면의 물체들은 지구에 비해 1/6 정도밖에 안 되는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리고 달은 물체를 표면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중력권의 범위도 그 지름에 비례하여 지구의 1/6밖에 안 될 것이다. 단약 지구보다 10배의 중력이 작용하는 행성이 있다면 지름에 비례하여 그 행성의 중력권의 범위는 10배 더 높고, 떨어지는 가속도도 10배 더 빠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블랙홀

태양 10배 초신성 폭발때 탄생
삼천대천세계도 하나의 우주

우주에는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다. 초신성은 적어도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이 그 수명을 다해 죽어가면서 일으키는 일종의 대폭발이다. 대폭발을 하면서 그 별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이라는 잔해로 변한다. 중성자 별은 반지름이 10㎞ '정도지만, 그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1000억 배나 된다. 중력이 1000억 배라는 말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지구보다 1000억 배 더 높은 중력권의 범위를 가지며, 동시에 물체는 1000억 배 빠른 가속도를 갖고 중성자 별 표면으로 물체를 흡입하게 될 것이다. 1000억 배의 중력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 상상을 초월하는 흡입력이다. 아마도 그 중성자 별 근처를 지나는 작은 별똥이나 아주 작은 우주 먼지까지도 남김 없이 빨아들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중력의 진공청소기가 될 것이다.

블랙홀은 중성자 별보다 훨씬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서 빛조차도 빨아들이고 마는 일종의 초고밀도의 작은 별이다. 고무 풍선이 바람을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뿜지 않는다면 그 고무 풍선은 두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하나는 고무 풍선이 늘어나 점점 더 커지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고무 풍선 표면이 단단하여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안의 공기 밀도가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블랙홀은 그 중에서 후자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은하계 범위 안의 우주 블랙홀은 빛까지도 흡입하는 강력한 중력으로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크기는 작아도 점점 더 밀도가 높은 방향으로, 어쩌면 무한의 밀도까지 진화하게 된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가 함께 쏘아 올린 벳포삭스 위성에서 1997년 12월 일회적으로 관측한 우주 감마선은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지구표면에서는 관측할 수 없고 우주 공간에서만 관측가능한 그 우주 감마선이 지니는 의미는 초신성의 대폭발에서 생기는 에너지 방출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블랙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 블랙홀은 중성자 별과 달리 폭발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기의 별 안으로 급속히 빨아들여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 낸다. 그 수축이 너무도 급속하여 빨려 들어가지 못한 많은 고온 가스가 확산되면서 주변의 우주 가스와 일으키는 충돌로 막대한 충격파가 광속의 속도로 형성되기도 한다. 관찰된 일회성의 감마선은 그때 나오는 에너지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물질들이 한 점으로 수축하여 블랙홀이 되는데, 우주에는 이와 같은 블랙홀이 수없이 형성되고 있다고 천체물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블랙홀의 존재는 비록 완전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 우주의 범위가 단순히 인간이 관측 가능한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최근 들어 영국의 '휠체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질량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뱉지 않는 우주적 기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웜홀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웜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우주는 이 우주와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우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판명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우주의 존재 양상이 지구가 위치한 한 모퉁이의 우주의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는 대부분의 천체물리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시방세계에서 역시 우주는 모든 이에게 다 같은 우주가 아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의 수 없는 겁(劫)의 시간을 소요하는 우주 각각은 색법에 갇힌 중생들에게는 단견(斷見)의 잘려진 우주이지만, 부처의 눈에는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다. 반산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중생의 우주는 처마 지붕이 다일 수 있지만, 부처의 청정 광명한 우주의 크기는 천 개의 태양과도 같다. 천년의 어둠을 한 순간에 밝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촛불이거늘, 천 개 태양의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달리 관심을 둔다면 천 개의 태양이 비추인 길이지만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도 그 같은 길을 촛불 하나만 갖고 걸어가기도 한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부처님 자란 카필라성 네팔일까 인도일까

지구촌 불교 / 英 · 印 고고학계 논쟁

부처님이 나고 자란 성(城)인 카필라바스투(Kapilarastus)성의 위치를 놓고 영국과 인도 고고학계의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지는 최근 "네팔의 틸라우라코트(Tilaurakot) 지역에 카필라바스투성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영국 브라드포드대 커닝햄(Coningham · 고고학) 교수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커닝햄 교수가 이끄는 조사단은 틸라우라코트 지역에서 기원전 7세기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토기 등의 유물을 발굴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로부터 서쪽으로 17㎞ 떨어진 틸라우라코트는 유럽 고고화자들이 카필라바스투 성지(城地)로 추정하는 지역이다. 유럽 화자들은 카필라바스투성, 즉 틸라우라코트에서 부처님을 잉태한 마야 왕비는 당시의 풍속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해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던 중 룸비니(Lumbini)라는 동산에서 싯다르타를 낳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인도 고고학계는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투성이 맞다면 기원전 7세기 전후의 유물이 나와야 하는데,

◇카필라바스투 성지로 추정되는 틸라우라코트 지역의 모습.

英 "최근 네팔서 결정적 단서 발견"
印 "당시 동전 발굴된 인도가 맞다"

틸라우라코트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것"이라며 "카필라바스투성은 네팔의 틸라우라코트가 아닌 인도의 피프라하와(Piprahwa)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파프라하와 유적에서 카필라바스투성에서 유통됐다는 문헌상의 동전이 발굴되면서 인도 고고화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인도의 고고화자들에 의해 시작된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 논쟁은 급기야 네팔과 인도의 자존심 대결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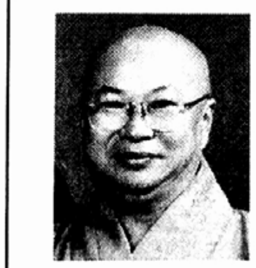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조사는 1880년 유럽의 고고화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에도 네팔의 틸라우라코트가 카필라바스투성의 유적지라는 주장과 인도의 피프라하와 및 간와리아(Ganwaria) 일대를 카필라바스투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다. 이외에도 카필라바스투성은 처음에는 틸라우라코트 지역에 있었지만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에 의해 파괴된 이후 피프라하와 및 간와리아 지역에 새로 세워졌다는 절충안도 있었다.

커닝햄 교수는 회색 토기 외에도 함께 발굴한 철제 아궁이, 적갈색 도가니 등의 유물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회색 토기로 인해 틸라우라코트 지역이 카필라바스투성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토기와 함께 발굴된 다른 유물의 연대를 밝힘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커닝햄 교수는 "다른 유물에 대한 연대가 밝혀지면 카필라바스투성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는 영국과 인도의 고고학계, 나아가 네팔과 인도의 자존심 섞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 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